



Presentation at the Temple- MANTEGNA, Andrea 1460.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말라 3,1-4
 [화답송] 시편 24(23),7,8,9,10(© 10 L C)



(후렴)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 - 시 다.

-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
-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히브 2,14-18
 [복음환호송] 루카 2,32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복음] 루카 2,22-40
 [성가안내] 청년성가집

- 입당성가 [51] 나는 주의것이다
- 봉헌성가 [57] 나를 받으옵소서
- 성체성가 [297] 주만 바라볼지라
- 파견성가 [296]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미 사 봉 헌

● 영미사

김준일 베드로, 김영복 아네스
 엄창석 요한, 정인봉, 박은남
 김영복 아네스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봉헌

김애희 테클라
 엄창자 요세피나
 손명희, 익명
 김지영 유스티나

● 생미사

이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네스
 민성진 에드몬드 가족
 이기원 스테파노, 홍원표 안드레아
 윤미하 엘리사벳, 정지혜 클라우디아
 이경자 벨라뎃다
 임국빈 T.아퀴나스, 김민아 안젤리카
 박연옥 엘리사벳
 박해진 마리아, 임영애 스텔라
 송혜승 마리아
 Alfred Song Augustine
 Sarah Song Sarah
 Nelly Song
 정다경 마리아, 김승현 마리아
 박정은 마리아, 박시현 마리아
 조소연 마르티나, 김가연 크리스티나
 박인영 크리스티나, 원혜경 아네스
 주현경 바울라
 김도경 첼레스틴 수녀

이지연 안나레지나
 민정신 아폴로니아
 우리 즐거움의 원천
 우리 즐거움의 원천
 민정신 아폴로니아
 울릿다 김
 김승한 어거스틴
 김기례 레지나
 송준호 바오로
 송준호 바오로
 송준호 바오로
 송준호 바오로
 희망의 모후
 청년 전례부
 청년 전례부
 청년 전례부
 신혜정 소화데레사
 박기목 알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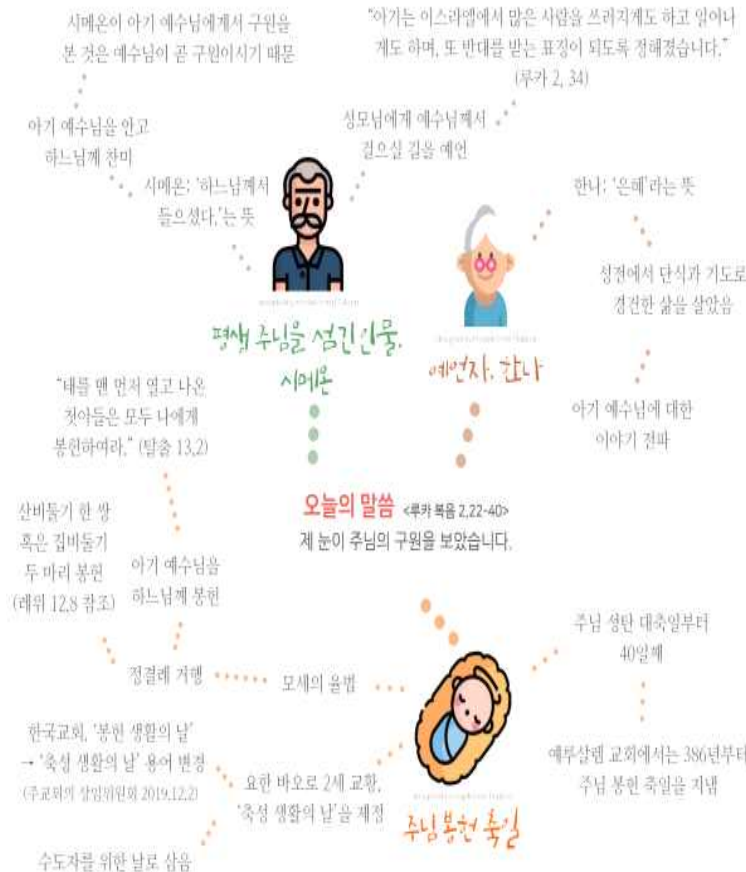
| 주일 | 해설 | 1독서 | 2독서 | 영어복음 | 보편지향기도 | 봉헌 | 복사 | 성찬봉사 |
|-------|----------|---------|----------|-----------|---------|---------|---------|------------------------------------|
| 2월 2일 | 백이백 아오스딩 | 김종화 필립보 | 민덕미 안젤라 | 신혜정 소화데레사 | 김애희 테클라 | 주현경 김보현 | 한창희 오석진 | 장혜윤 이경자(울) 박민재 이지연 양미숙 김영숙 윤숙자 김창훈 |
| 2월 9일 | 박민재 아그네스 | 박기목 알버트 | 정우진 콘솔시아 | 임우진 라차로 | 양미숙 마리아 | 장철순 장혜윤 | 장동환 장동엽 | 김성중 김효진 홍민철 박신희 이경숙 안선정 강호영 조리디아 |

| | |
|------|------------------------|
| 주일미사 | 오전 09:15 윗 성당 |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
| 혼인성사 | 신부님께 직접 문의 |
| 유아세례 | 사무실 : 347-834-5784 |

[주님 봉헌 축일에 대하여]

교회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예수 성탄과 주님 공현을 마감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낸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한다. 예루살렘에서는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으며, 450년에는 초 봉헌 행렬이 여기에 덧붙여졌다. 6세기에는 시리아에서 이 축일이 거행되었고, 로마는 7세기 후반에 이를 받아들였다. 8세기 중반에는 '성모 취결례(정화) 축일'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18세기 프랑스 전례에서 '주님 봉헌'으로 바뀌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날을 '봉헌 생활의 날'로 제정하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교황청 수도회성은 해마다 맞이하는 이 봉헌 생활의 날에 모든 신자가 수도 성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봉헌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한다.

[복음 묵상]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CLEAR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자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O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릭온.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BRYANT PARK DENTAL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 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 다미아노 홀(성당 밖 좌측 20m)

[오늘의 정기모임 및 행사]

- **울뜨레야** : 11시, 교육관 4호실
- **학부모회** : 11시, 교육관 3호실

2월 친교실 봉사 : 양협회

주일학교 · 한국학교 개강 : 2.2

주님 봉헌 축일 초 수령

: 다미아노홀 입구

여성 꾸르실료 봉사자 교육

동북부 울뜨레야 사무국이 주관하는 '여성 제38차 꾸르실료'를 위한 봉사자교육이 1/28 ~ 4/20일까지 13주 동안 뉴저지 가톨릭회관에서 있습니다.
김승애 클라라자매님과 제갈경희 세실리아 자매님이 봉사자교육 수강자로 함께합니다.
많은 꾸르실리스따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행사]

성지(聖枝) 수거

2월 16일(주일)까지 2019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성한 나뭇가지를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는 2월 26일 재의 수요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재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2020 FYNV 청년피정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 41,10)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이 과거 예수님의 실제 삶을 돌아보며, 하느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곳에 머물며 회복의 시간을 갖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보길 원하는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 장소 : 뉴튼 수도원
289 US-206, Newton, NJ 07860
- 일정 : 2.29(토)8am출발-3.1(일)오후 도착
- 참가비 : \$135
- 신청문의 : 유대건 미카엘631.655.1733
cloudryu123@gmail.com / Kakao카톡: cloudryu123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쫓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2.2 모든수도자 2.3 블라시오 2.5 아가타
- 2.10 스콜라스티카 2.14 치릴로
- 2.23 폴리카르포

2월 성경 공부

| | | |
|-----------------|----------------------------|-----------|
| 수요일 12.19.26 | 2:30-3:45Pm 7:15-8:30Pm | 클레어 룸 |
| 주일 2.9.16.23 | 1:30-2:50Pm | 코리안 컨퍼런스룸 |

성경통독을 위한 입문서 예약판매

지난 한 해 동안 주보를 통해 연재되었던 "성경 맛들이기"를 모아 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도서성물부에 신청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참여 신청(시민권자 제외)

"세계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고/신청기간 : 2020. 2.15까지
◦ 신고/신청방법 : 인터넷이용(ova.nec.go.kr)
◦ 투표기간 : 2020. 4.1-4.6
√귀국투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1)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국내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성경구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마태 20,32)

처음에는 어떤 것을 청해야 하나, 무엇이든 열심히 달라고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뜻인가 생각이 들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부딪치게 되면 빈 성당에 가서 무조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되풀이하면서, 이게 정말 기도인가 싶고, 속으로 웃음밖에 안 났습니다. 조금씩 발전된 모양새로 주모경을 더했지만 어쩐지 이런 건 기도가 아닌 듯 느껴졌지요.

기복신앙이었지만 예전부터 해왔던 대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가깝게 계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니, 말씀만 드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울렁거리는 마음, 분하고 서러운 마음 모두를 낱낱이 이야기 했습니다. 때론 친구에게처럼, 때론 상사에게처럼 주님께 싸우고 싶은 사람, 원망하고 싶은 사람, 정말 싫은 사람을 말씀드리며 주님, 제 마음은 이랬습니다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살면서 습관처럼 나쁜 마음, 괴로운 마음, 미운 마음들을 이야기하며 풀어 가다보니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 신부님들의 강론, 또 여러 강의를 들어가며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게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달라고만 청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삶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때를 쓰며 울기도 하고 낙심도 했던 저에게 그분께서는 저의 기도를, 제가 바라는 것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달라고만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해지며 내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제 이익과 신념만을 위한 기도라면 침묵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전히 나 자신과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실하게 매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절실하게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좀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더 현명한 생각,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

본당 게시판

[행사 후기] ♡설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배, 떡나눔, 전통 놀이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윗놀이로 출전한 팀들이 많아 더 이상 들어설 데 없는 공간속에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형제님들 사이에 남발하던 성호경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던 올해의 행사는 환희와 감격, 아쉬움의 순간을 만들어 내며 대단한 열기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윗놀이

1등 쿠리아 2등 요셉회 3등 청년회

♡제기차기

1등 한지환 2등 서인철 3등 신부님

♡팔씨름

1등 유재상 2등 유대건 3등 한지환

1등 김승현 2등 이영노 3등 신혜정

[전입을 환영합니다]

- 이동혁(요셉)이정자(베로니카)부부
- 라무중(스테파노)우현결(에밀리아나)라윤성(소피아)가족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김화자(소화데레사) 정인해(예로니모)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김동희(헬레나) 고종호(마태오)

[감사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내신 분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이영애(레지나)

[추천하는 책]



정태현 지음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삼분의 일이나 차지하는 비유를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상을 똑바로 이해하는 지름길을 역설하며, 비유의 저마다 독립적인 메시지를 자세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안에 숨겨진 주제와 메시지를 발굴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이 책을 도서성물부에서 만나보세요^^